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3116.27	↑ 코스닥	793.33
	(+41.21)		(+11.16)
↓ 금리 (미국 9년)	2.449	↑ 환율	1359.60
	(-0.034)		(+0.9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스

“경제 흐름 부동산→금융시장 전환”

李 대통령 취임30일 회견
 민생회복·성장도약 최우선
 지원금 추가 계획은 없어
 부동산 규제는 맞보기 불과
 수도권 과밀화 완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단히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업무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한 달 간의 성과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 ▲국제무대 복귀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 ▲정의로운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꼽았다. 특히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만든 점을 언급하며,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며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부동산대출 규제는 맞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이어 “부동산 공급대책에서는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새로운 방식의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으로 현금 유동성이 옮겨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지역균형발전 등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주식 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일 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美-베트남 관세 인하에 현지거점 둔 韓기업 ‘방긋’

미국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이에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도 관세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며 긴장감이 풀릴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20% 관세를, 환적 물품에 대해서는 40%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환적 물품은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국가 제품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합의는 트럼프가 지난 4

월 베트남에 대해 제시했던 46%의 고율 관세 방침에서 크게 물러선 것으로 미국과 베트남 간 통상 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관세 부담 완화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주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1만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베트남이 점차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내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상법 개정發 증시 기대감… “코스피 4000 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단기 과열 우려, 경계론 부상**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다.”

3일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 통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날 국회가 소액주주 권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으로)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연일 최고점을 새로 쓰자 증권가에선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40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주가가 짧은 기간 너무 뛰다

보니 코스피가 조만간 조정을 받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4% 오른 3116.2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다. 코스피는 3200선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하나증권은 목표기간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코스피 목표치를 4000까지, 삼성증권은 3800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3700으로 잡았다. 신한투자증권은 3

분기 예상범위를 2850~3500으로 제시했다. 현대차증권은 내년 상반기 36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낙관론의 근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경기 정상화) ▲상법 개정 등 증시 부스트업 재료 ▲달러화 약세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합의 ▲반도체 업황 회복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식투자 선호 등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전형적인 내로남불”
 ▲박찬대 “9월까지 검찰청 해체”… 정청래 “추석에 ‘검찰청 폐지’ 뉴스 들리게”
 /사진 뉴스스

▲美 상호관세 시한 임박… 내일 ‘한미 관세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한미일 합참의장, 내주 서울서 李 정부 출범 후 첫 회동… 북핵문제 등 논의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동맹 계속 충실”
 ▲‘단식투쟁’ 김성태 “나경원, 소꿉놀이 당장 건너치우고 삭발해야”